

## 직원들이 읽어주는 전래동화로 한국문화 전달

- 주일한국문화원 직원들이 대본 작성에서부터 내레이션 녹음까지 모두 참여
-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문화 체험과 한국어 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어린이 대상 온라인 영상 콘텐츠 ‘한국문화원이 읽어주는 전래동화’를 유튜브 공식채널(온라인 주일한국문화원 <https://www.youtube.com/kcultureinjapan>)에서 발신한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의 공연, 전시, 한국어, 한식, K-POP, 엔터테인먼트 정보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발신하고 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문화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2023.7 현재 구독자 약 2만 3천명)

그중에서도 문화원 직원이 직접 기획 및 출연하고 제작한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구독자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한국문화원이 읽어주는 전래동화’도 전 직원이 참여하여 기획, 대본작성, 내레이션 녹음, 영상편집까지 함께 작업하였다. (삽화작업은 미술전공 한국 유학생에게 외주)

이를 위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에게는 우리 문화 체험의 기회로, 성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학습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 전 연령대상 프로그램 ‘한국문화원이 읽어주는 전래동화’를 기획, ‘호랑이 형님’, ‘콩쥐팍쥐’, ‘효녀 심청’, ‘흥부와 놀부’, ‘은혜 깊은 까치’ 등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 전래 동화 5편을 온라인으로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선보이고 있다. (7.15 심청전 공개 예정)

공형식 문화원장은 “영상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원에서도 여러 장르의 영상을 발신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젊은 이용자층이 엔터테인먼트, 관광 중심의 정보만을 습득하지 않도록 전통 음악을 비롯한 전통문화, 현대 전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등 한국문화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콘텐츠의 균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이 만든 소박한 영상이지만 효, 의, 인과응보 등 한국의 전통적이면서도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행사담당자	나카모토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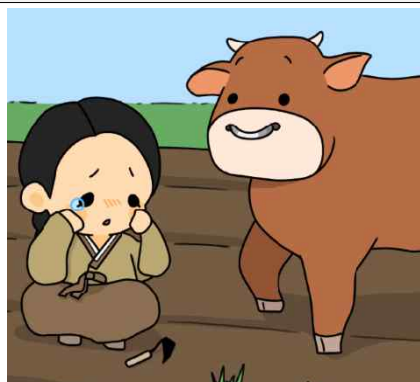
# 한국문화원이 읽어주는 전래동화 행사 개요

### □ 행사개요

- 일 시 : 2023.7.1.(토)~ 총 5편 (매주 토요일 공개)
- 매 체 : 유튜브 공식채널  
(<https://www.youtube.com/kcultureinjapan>)
- 주 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 내 용 : 문화원 직원이 읽어주는 한국의 전래동화 5편
  -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7/1 공개)
  - 콩쥐팥쥐 (7/8 공개)
  - 효녀 심청 (7/15 공개 예정)
  - 흥부와 놀부 (7/22 공개 예정)
  - 은혜 갚은 까치 (7/29 공개 예정)



녹음 풍경



삼화 이미지